

5



리 히준 선생님.

리 히준 (본명: 리 와실리 지모포예위치)
 1906 년에 원동현강 유대인 자치주, 블
 라고 웨센스크 군, 비로비드잔시 북근 블라고슬
 라벤노에 농 빈농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었다.
 향촌에서 1919까지 소학교를 다녔고
 블라고 웨센스크시에서 1923년에 초등을 졸업했다.
 1924년에 김나시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27년

에 취임하였다.

중학을 필하신 이후 가정의 경제관계 때문에 계속공부를 못하시고, 1928년 부터 1931년까지 직장에서 부기원으로 일하시고 그 후 1932-1933년 기간에는 원릉병원 우도 화바름노크시에서 재정일꾼 강습소를 수강하였다. 이 강습소를 나온 다음부터는 완전한 재정일꾼으로서 1933년 부터 1937년 한일 강제어쿠 시까지 일하셨다. 리허클 선생은 한일 강제 어쿠 시기에 무르백한 나만간주에 도착하게 되었다. 리허클 선생은 나만간시에 도착하여서도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인기있게 등용되는 재정 일꾼인것만큼 강제어쿠 이어 나만간주 노비조할 위원회 재정검열부 부장으로 장기간 일하셨다. 이 직위에서 장기간 외신 없게 책임적 사임을 잘 수행하였으므로 인제는 아무 싯북자만 일할수 있는 도당 조직부 간부 부장으로 선거되어 1945년 9월에 북한으로 귀환하여 가실 때까지 일하셨다.

북한에 도착한 리허클 선생은 일반적으로 소련을 싯간부들과 같이 인민사령부 총역원으로 북한 인주 개혁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면서 농촌정리회 지국 부하 및 협동정리 조직에 참가 하였으며, 그 후 농지 개혁이 끝난 다음 1946년 5월 부터 산업, 운수, 상업기업체 등 모든 경제 대검열은 국유화 하는 사업에 참가하셨다. 1948년 부터 인주공화국 내각 간부국 부국장 직에서 약 2년간 일하신 다음 계속 내각 관우 국장으로 계속 일하셨다.

리희준 선생은 본래 성의가 아주 고결하여서
 누리고던 함부로 농담의 말도 하지 아니하여, 한번
 약속한 말은 꼭 끝까지 실행하는 성의였다. 북
 동적 노련 출신 간부들은 1956년 북에 사상검론
 에 걸려 강직당하나 철직당하곤 당에서까지 업종
 평인 혹은 출당을 당하여 농촌에 내려가 고생을
 하던가 그렇지 아니면 노련에 들어오곤 하였으나
 리희준 선생은 배 밑하루 같이 높은 직위, 언리공
 화국 내각 간부직장의 직위에서 계속 1961년까지
 일하시곤 다음 심장병으로 말리아라 약 일년
 간 로령양에서 계속 고생하시다가 1962년에 노
 련중앙 정복의 정석허가로 노련 공민권을 회복
 식한다음 1962년에 모스크바에 들어오게 되었다.
 리희준 선생은 사상검론 사업에서 아무런 비탄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떠한 책벌도 없이 끝까지 일하시었다.
 모스크바에 들어오시어서 당중앙 조직부에서 특별
 한 돌함으로 아직 연금생 권령이 되지 않았으나, 공
 훈 간부 연금생으로 문건을 누룩받아가지고 자기 친척
 친구들이 있는곳으로 즉 알마티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곳에 도착하여 리희준 선생은 가족의 구해문제
 아이들의 공복문제로 다 헤쳐나가며 늘고 1966년까
 지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6월 20일에 별세하
 였다. 현재 자손들은 아들 하나 딸 한명이 알
 마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1999. 10. 12